

Overweight

통신 (Overweight)

SKT의 '에스케이하이퍼' 출범과 그 의의

SK텔레콤의 AIDC 사업을 전담할 신규 법인 '에스케이하이퍼' 출자 공시

'26년 7월 23일 동사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전담할 신규 법인 '에스케이하이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차 3,300억원, '30년까지 총 7,500억원을 단계적으로 출자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에스케이하이퍼'는 SK텔레콤의 지분 100% 자회사로, 향후 대규모 AIDC 사업의 개발 및 사업화를 담당할 전망이다. 현재 보유 중인 데이터센터 자산과 '29년 완전 가동 예정인 100MW 규모의 울산 AIDC는 기존과 같이 SK브로드밴드가 직접 운영한다. 반면 추가 울산 AIDC 900MW 개발과 '메가프로젝트'에서 제시한 1차 5GW[29년 목표], 중장기 15GW[35년 목표]의 AIDC 사업은 '에스케이하이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거점으로는 기존 울산 외 충청 및 서남권이 거론되고 있다.

'에스케이하이퍼' 사업 모델 및 수익 구조 예상

'에스케이하이퍼'를 통한 대규모 AIDC 사업은 데이터센터를 직접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지와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고객과의 상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초기 사업개발에 집중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이후 데이터센터의 건설, 보유 및 운영은 프로젝트별 SPC를 통해 수행하며, FI의 지분투자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외부자본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에스케이하이퍼'의 수익 구조는 SPC 별로 상이하고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으나, ①초기 사업 개발 성과에 대한 일회성 수수료 및 ②향후 SPC가 보유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연동된 수수료를 순액으로 인식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에스케이하이퍼의 매출액 → 동사의 연결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구조이며, 데이터센터 규모에 비해 동사가 인식할 매출 규모는 작으나 AIDC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CAPEX나 데이터센터 직접 보유 및 운영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부담을 SPC에 이전함으로써 재무, 운영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15GW) 확보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수익화 전략을 확보

기존 '메가프로젝트'에서 제시한 5GW, 나아가 15GW 규모의 AIDC 확보는 Colocation과 AI Factory 어느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약 75조~350조원[5GW 기준]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현실성이 낮았다.

반면 '에스케이하이퍼'를 통해 구상 중인 사업 방식은 부지, 전력, 고객계약 확보와 같은 초기 사업 개발에만 집중하고, 실제 데이터센터의 건설 및 운영은 프로젝트별 SPC와 외부자본을 활용함으로써 SK텔레콤의 재무부담은 최소화하고 대규모 AIDC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부의 전력, 인허가 지원과 계열사 SK하이닉스를 통한 메모리 조달과 같은 경쟁력을 고려하면, 동사가 구상 중인 사업 구조는 AIDC 직접 보유를 통해 발생하는 리스크는 제한하면서 AIDC 확보 속도와 수익화 가능성을 높인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한다.

그림1. SK텔레콤은 '26년 07월 23일 AIDC 사업부문을 전담할 신규 법인 '에스케이하이퍼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를 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기업집단명	에스케이	회사명	에스케이텔레콤(주)	공시일자	2026년 7월 23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	------	-----	------------	------	--------------	------	------------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에스케이하이퍼(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편입 예정)
2. 출자내역	가. 출자일자	2026년 7월 ~ 2030년 12월 중		
	나. 출자목적물	보통주 1,875,000 주		
	다. 출자금액	330,000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	750,000		
3. 출자목적		AI 데이터센터 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4. 이사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 상기 1. 거래상대방인 에스케이하이퍼(주)는 2026년 7월 내 신설 예정 법인으로 에스케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이나, 계열회사 편입예정으로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진행함 - 상기 2. 나. 출자목적물 및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에 대해서는 2026년 7월부터 2030년 12월 까지 분할 출자 예정임 - 상기 2.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은 거래상대방 설립시 최초 출자금액(2.다.)과 향후 출자 예정인 금액을 포함한 총출자금액(2.라.)임 - 상기 일정 및 수량, 금액 등 세부사항은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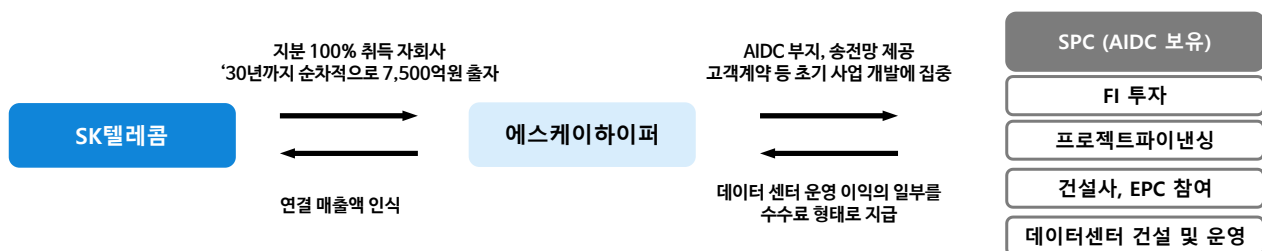
자료: SK텔레콤, iM증권 리서치본부

표1. 기존 SK브로드밴드 및 에스케이하이퍼 AIDC 사업 구조 특징 및 주요 차이점

구분	SK 브로드밴드(SKB)	에스케이하이퍼
주요 대상 DC	기존 보유 데이터센터 (137MW) '29년 완전 가동 예정인 울산 AIDC (100MW) '30년 가동 예정인 구로 AIDC (60MW)	울산 추가 900MW 메가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중장기 15GW 신규 AIDC
DC 소유구조	SKB가 데이터센터 자산을 직접 보유	프로젝트별 SPC가 데이터센터를 소유 (직접 소유 x)
자금조달	SKB 자체 CAPEX 및 차입을 통해 건설	FI 지분투자, PF 등 외부자본을 중심으로 조달
실제 건설·운영	부지매입 및 인프라 건설까지 직접 시행	부지매입, 송전망 확보와 같은 초기 사업 개발만 진행 이후 SPC가 데이터센터를 보유 및 운영하는 구조
수익구조	Colocation 중심	프로젝트별 Colocation, GPUaaS(GPU-as-a-Service) 상이 AIDC 운영 이익의 일부 수수료를 순액으로 취득
리스크	CAPEX 투입에 따른 재무 리스크 감가상각, 운영비 등 비용부담	대규모 CAPEX 및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용 리스크는 SPC에 전이

자료: SK텔레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에스케이하이퍼 사업 구조 예시



자료: SK텔레콤,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6-06-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9.8%	10.2%	-